

# 공정론의 입장에서 본 조선 성리학 조선의 개혁적 사상이었음에 초점

조선시대 사상사의 재조명  
지두환 지음

역사문화/A5신/446면/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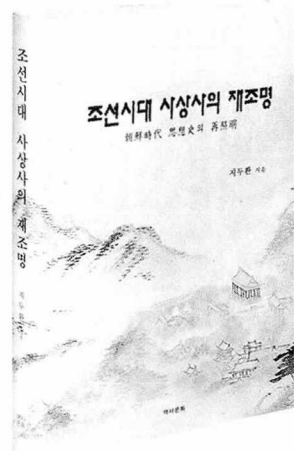
한말에 조선 유학에 대한 자성적 부정론(自省的 否定論)이 대두한 후, 일제 식민사학은 유교망국론으로 조선시대 사상사를 왜곡했다. 해방 이후 1960·70년대에는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여말 선조의 성리학, 조선후기의 실학이 주로 연구됐다. 1980년 무렵에 와서 성리학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선시대 성리학의 실체와 역사적 성격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지두환 교수의 《조선시대 사상사의 재조명》은 성리학 공정론의 입장에서 그동안 발표해온 논문을 모은 책으로, 1980·90년대의 사상사 연구의 한 경향을 대표하고 있다.

조선전기를 다룬 제1편은 조선전기 사회를 발전시킨 사상은 성리학이었다는 점이 기조를 이룬다. 제1장 <조선전기 사상사 연구동향>에서는 기존의 연구경향이 성리학 부정론에서 성리학 긍정론으로, 성리학 긍정론에서 성리학 성격논쟁으로 전환했다고 정리했다. 제2장 <조선전기 《대학연의(大學衍義)》 이해과정>에서 조선전기의 주자성리학이 경제와 철학을 포괄하는 사상이었음을 주장하고, 제3장 <조선전기 군자·소인 논의>에서는 군자·소인 논의가 사림과 훈족세력간의 왕도(王道)와 패도(霸道)라는 정책상의 차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제4장 <조선전기 종법(宗法)제도 정착과정>에서는 성리학적 정통론이 조선전기사회를 발전적으로 개혁하였다는 점을 밝혔고, 제5장 <조선전기 문묘종사논의>에서는 도통론에 입각한 성리학 이해 과정을 정리하였다. 제6장 <조선전기 국전(國田)체제 확립과정>에서는 조선전기의 토지제도를 국전체제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성리학을 경제적 개혁을 추진하는 사상으로 보았다.

조선후기를 다룬 제2편은 조선후기를 변영의 시기로 보고 그것을 주도한 사상이 조선성리학이었다는 점으로 집약된다. 제1장 <조선후기 사상사 연구동향>에서는 60·70년대에는 성리학부정론, 80년대에는 성리학 긍정론, 90년대에는 성리학 성격논쟁으로 연구경향의 변화를 파악하고, 제2장 <조선후기 실학연구의 문제점과 방향>에서 기존의 '실학사상'의 개념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후 조선후기 사상사를 조선성리학과 북학사상으로 재정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장 <조선후기 예송(禮訟)연구>에서는 예송을 이념논쟁으로 파악하면서 울곡 이이, 우암 송시열로 이어지는 정통성리학자의 정치이념적 개혁성을 주장하고, 제4장 <조선후기 호포제(戶布制) 논의>에서 양반호포론에 주목하여 사회경제사상의 측면에서도 개혁적이었다고 밝혔다. 제5장 <조선후기 양명학의 수용과 전개>에서는 조선양명학은 울곡의 성리철학에 바탕을 두었다고 논증하면서 '조선양명학'을 조선성리학의 한 분파로 파악하였다.

이 책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조선시대 성리학을 긍정적 관점에서 파악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를 갖는다. 성리학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과 관련시켜 사상적 의미를 규명하는 방법론으로 택하였고, 조선시대의 사상사가 주자성리학·조선성리학·북학사상으로 전개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조선성리학이 조선사회를 발전시키는 개혁적인 사상이었다는 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 책에서 채택한 연구방법과 조선사상사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방식 등은 1980년 이래의 연구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성리학을 보는 독특한 시각, 조선성리학의 역사적 성격 등은 조선시대 사상사 연구의 새로운 쟁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 김향수

동덕여대 국사학과 교수. 논문 <16세기 사림의 성리학적 이해>, <선조 초년 신구갈등과 정국동향> 외.

#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 일본의 얼굴 일본의식의 문화인류학적 성찰은 없어

일본, 허울뿐인 풍요

개빈 매킨톡 지음/한경구 외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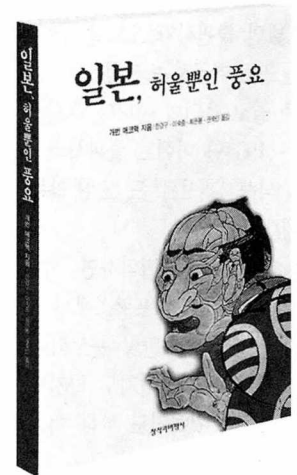
창작과비평사/A5신/390면/9800원

왜 이웃나라는 화목할 수 없을까? 아마 이것은 하늘이 준 천형(天刑)이 아닌가 싶다. 정치인들끼리 만나면, 온갖 수사(修辭)를 늘어놓지만 우리는 안으로 비수를 품고 시는 은수(恩讐)의 천년을 지내왔다. 본디 사람의 지난 역사에서 기쁨보다 아픔이 더 깊어 각인된다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 수도 있다. 한일관계가 바로 그러한 예에 속한다.

어느 때인들 일본이 한국의 관심대상이 아닌 적이 있을까만은 최근 들어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일본은 없다는니, 있다느니, 한국은 몇번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가 몇가지 된다는니 하더니 요즘에 와서는 세태 탓인지 일본의 경제에 관한 글이 눈에 띄게 많다. 여기에 소개하는 매킨톡의 저술도, 약간 시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본 경제의 실상과 허상을 추구한 저술 중의 하나다.

크게 분류하자면 이 책은 '일본은 없다'는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국립호주대학의 역사학자로서 오랜 일본생활을 거쳐 쓴 이 책은 얼핏 보기에는 '일본 패주기'(Japan-bashing)의 유형에 속한다. 그는 아마도 1995년의 고베(神戸) 지진과 그를 둘러싼 일본인의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하다. 그는 책의 첫머리에 30쪽에 걸쳐 당시의 참상과 복구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아마 독자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왜 이 대목을 이토록 지리하게 기술하는가, 이 책도 그 흔한 백색 우월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읽기를 중도에서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좀더 인내를 가지고 읽다보면 이 책은 어느 책과는 좀 다른, 어느 필자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는 성장과 GNP제일주의가 종교처럼 만연된 일본의 그늘을 지적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일본을 토건(土建) 국가요, 레저산업에 몰두하는 국가요, 아무리 첨단 전자산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일본은 끝내 농업국가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지으면서, 공해와 환경파괴, 그리고 문명국가 중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속에서 망가져가는 '일벌레들의 최후'가 어찌될 것인가를 연민의 눈으로 그리고 있다.



이 글이 단순히 일본 흠잡내기의 책이라면 한국 우익들의 구미에나 맞을 책이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 책의 메시지는 '어려져러한 것은 일본에게서 배울 것이 못된다'는 내용이지 '우리는 일본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배울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일본은 우리에게 훌륭한 반면(反面)교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 책은 시사하고 있다.

이 책이 노작이자 고뇌의 저술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책을 덮으면서 남는 여운 같은 것이 있다. 즉 이 책의 필자가 역사학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왜 그는 일본의식의 밑바닥에 깔린 문화인류학적 성찰을 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예컨대 고베 지진 당시 수도(水道)부장이 자살한 것은 좌절감 때문이라는 오해가 그것이다. 그도 분명히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을 읽었을 터인데.

## 신복룡

건국대 정의과 교수. 저서 <동학사상과 갑오농민혁명>, <한말개화사상연구>, <한국정치사상사> 외.

# 국제금융 시스템 차원에서 대공황 이해 대공황의 국제관계적 측면에도 주목

## 대공황의 세계

찰스 P. 킨들버거 지음/박명섭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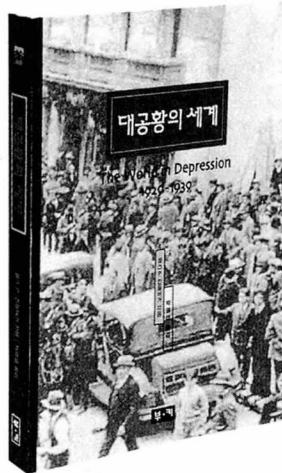
부키/A5신/416면/12,000원

1929년의 대공황은 세계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공황이었다. 공황의 역사가 17세기 암스테르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또 18세기 후반부터는 대략 10년 주기의 불황 또는 공황을 겪게 되지만, 어느 공황도 그 규모와 기간, 그리고 재앙의 정도에 있어서 대공황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미국 한 나라에서만 수천만의 실업자가 발생했던 대공황은 그야말로 세계공황이었으며, 공황 이전 수준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10년 가까운 고통의 세월이 필요했다.

이 대공황의 원인은 아직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대공황에 대한 많은 가설적 설명이 나타나긴 했지만 통설은 없다. 이 책 역시 대공황에 대한 가설적 설명 중의 하나다. 대표적인 케인즈주의 국제금융학자인 킨들버거는 대공황을 국제금융 시스템의 차원에서 이해한다. 19세기 금본위 국제금융질서는 영국의 헤게모니에 의해 유지되지만 1914년 일차대전 발발과 함께 금본위제는 중지된다. 종전 후 유럽 강대국들은 많은 논란과 주저 끝에 금본위제로의 복귀한다. 그러나 1925년 금본위제로 복귀할 당시 영국은 이미 금본위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을 상실하였다.

세계경제의 중심은 지는 해인 늙은 제국으로부터 새로운 강대국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태세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금본위제 복귀는 국제금융질서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하였다(금본위제 복귀는 1931년 대공황의 절정기에 실패로 끝나고 만다). 1929년 미국 주식시장 붕괴가 대공황으로 건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것은 세계경제 헤게모니 부재로 인한 국제금융질서의 불안정성 때문이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 킨들버거의 주장이다.

킨들버거의 주장은 대공황을 국내적 요인이나 실물적 요인에 한정하여 설명하는 견해와는 달리, 국제관계적 측면에 주목한다. 이 점에서 그의 관점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이해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제금융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의 국지적 충



격이 다른 지역에 그대로 대칭적으로 흡수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항상 비대칭적이다. 이론적으로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이 대칭성을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 속의 국제금융자본은 이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킨다. 즉 투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킨들버거는 국제금융시스템이 국제적 차원의 주권을 행사할 때, 또는 강대국의 기축통화에 기초할 때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의 공황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들은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성을 통제하고 세계경제의 경기를 사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체제와 제도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만약 대공황 때의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자국주의적 대응 내지는 근린국뺨화 정책으로 나아갈 때 세계경제는 공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경고다. 이런 점에서 20세기 최대의 경제적 재앙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 김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논문 <하이테크 자유주의론 비판>, <하이테크의 화폐사상> 외.

# 미래 복합형 유기체와의 협력 모색 과학적 논리 근거해 설득력 뛰어나

## 미래를 원한다

조엘 드 로스네 지음/김덕희·문선 옮김

동문선/A5신/358면/8500원

이 책은 얼핏 미래의 인간형을 공상적 수준에서 추리하여 서술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근거와 자연과학의 논리를 토대로 엮어서 새로운 '거대 복합형 유기체(생명체)'의 개념을 창안했다. 그리고 미래의 사회는 현재 인간본위의 생활이 아니라 가공적 복합형 유기체(여기서는 '사이바이온트'로 명명된다)와 상호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사이바이온트(Cybiote)라는 용어는 인공지능학(cybernetics)과 생물학(biology)의 합성어다. 많은 과학적 발전의 계기를 따져보면 각 분야의 선각자는 일반인의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공상 같은 내용을 논의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것이 공상이 아니라 현실화될 많이 경험한다.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의 연구개발을 최첨단 산업과학의 하나로 꼽고 있다. 웬만한 로봇산업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로 응용되고 있으며, 컴퓨터 공학분야는 사회활동과 경제발전에서 안될 생체의 혈관과 신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

사이바이온트는 마치 인간의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가 체내외에서 시시각각 작용하는 정보와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고 생리를 안정시키는 일과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미래의 2000년대를 살아갈 인간형은 사이바이온트와 서로 공생하는 수단이 없이는 신경이 전달된 동물의 생활과 같아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사실 분자생물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생물은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라는 세포내 소기관과 공생관계로 생존하고 있다. 또한 식물은 엽록체와 공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견해가 거의 확실히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미래의 인간형은 사이바이온트와 공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와 같은 주장과 논리는 사회·경제·과학 등 모든 분야에 접근하며, 그 가능성에 관한 추리가 매우 이상적인 논리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를 사로잡는다. 따라



서 얼핏 생각하면 공상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설득력이 뛰어나다.

좀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인간은 지나친 욕망과 지배욕이 강하다. 그래서 자연의 위력에 순응하면서 공존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현명함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생물은 다윈이 주장한 적자생존의 이론에 맞게 긴 세월 동안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사이바이온트와 공생의 발전은 자연진화적 느린 변화가 아니고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따라서 새로운 공생적 관계에 빨리 접근하지 못하면 마치 천리안·하이텔과 같은 전자우편 시스템을 모르고 미래를 살아가는 것처럼 적자생존의 낙오자가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은 상상력과 공상이 풍부한 지식층의 독자와 창의력이 뛰어난 젊은 학생들에게 큰 호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정주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 저서 <유전학>, <생물과학>, 역서 <가드너 유전학> 외.